美 영화산업의 중심지 할리우드서 통한 한국의 감성

할리우드 트리뷰트 어워즈& 오스카 뷰잉 행사

스타·사업가·정계인사 등 참여 문화교류·비즈니스미팅 이어가

할리우드 트리뷰트(회장 단조·Don Cho)가 "할리우드 트리뷰트 어워즈 및 오스카 뷰잉 행사를 지난 9일(현지시간)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제92회 오스카 아카데미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다. 해당 행사에는 오스카 시상식을 기념하며 수백 명의 할리우드 스타, 사업가, 문화예술인, 정계인사,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레드카펫을 밟으며 수상을 축하하는 장이다. 동시에 문화교류 이벤트를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할리우드 트리뷰트가 주최하는 할리우드 트리뷰트 어워즈 및 오스카 뷰잉 행사는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열리지만, 한국의 감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국기에 대한 경례가 눈에 띄는데, 무대 위 화면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유대인들이 정자세로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출연진 전체가 무대 위로 올라 '위 아 더 월드'를 부른다.

할리우드 트리뷰트의 특별한 이벤트는 6세에 미국에 이민한 한국계 미국인 단조 회장의 영향 때문이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오스카 뷰잉 행사는 주로 유대인 중심의 행사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단조 회장이 행사를 맡게 되면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의 참석이 일부 취소됐고,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온 인사가 주를 이뤘다.

올해 할리우드 트리뷰트 어워즈는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관으로 인해 더욱 빛났다. 이미 베를린 영화제와 칸 영화제 등 다양한 수상경력 영향으로 현지에서의 봉준호 감독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총 4번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할리우드 현장에서 한국에서 온 스태프와 모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샤르마 인 블레이커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오스카 뷰잉 이벤트뿐만 아니라, 2019 Ms 할리우드 트리뷰트 퀸 수상자 시상식, 글로벌 모델들과 한국 패션모델, 키즈 모델들의 전통한복 쇼와 디자이너 쌘드라 쇼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현지 가수와 댄스팀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할리우드 트리뷰트 글로벌 패션쇼

단조 할리우드 트리뷰트 회장은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겠습니다"라며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신명희 할리우드 트리뷰트 CEO는 "앞으로 할리우드 트리뷰트는 할리우드 트리뷰트 키즈, Ms 할리우드 트리뷰트 콘테스트 외 많은 할리우드 문화 콘텐츠 및 영화, 스칼릿 할리우드 샤인 화장품, 그리고 할리우드 커피 사업 등 할리우드 브랜딩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내며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한편, 할리우드 트리뷰트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전 세계 음악인들이 모여 슈퍼 환경 콘서트 및 할리우드 트리뷰트 뮤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LA(미국)=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韓바이오기업, 오스카 뷰잉서 기술력 과시

NKCL 바이오, 메인스폰서 참여

중화권 넘어 전세계 진출 포부

면역항암제, 항노화·뷰티시장 섭렵

NKCL 바이오그룹이 미국 LA 할리우드 오스카뷰잉어워즈 메인 스폰서로 나섰다.

NKCL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올해 '할리우드 트리뷰트 어워즈 및 오스카 뷰잉'에서 메인스폰서로 참석했다. 베벌리 힐튼 호텔은 지난 1월 5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제77회 골든글로브'(2020)가 열린 곳이다.

NKCL바이오그룹은NK면역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다. 표적치료·NK세포 자동화 배양시스템 등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통해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전세계 면역항암제 시장은 물론, 항노화 및 뷰티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오스카뷰잉어워즈는 오스카 시상식을 기념하며 할리우드의 VIP들과 셀렙들이 참석, 수상을 축하하는 장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해당 행사는 초청장 없이는 참가가 불가능하며, 초청을 받더라도 1만 달러(한화 약 1180만 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NKCL바이오그룹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이 행사에 초청받았다.

NKCL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 독감 등으로 면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시점에 우수한 기술력과 면역케어라는 브랜드가치로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영화 시상식에 걸 맞춰 NKCL 브랜드 홍보 영상 상영회를 하고, NKCL의 프리미엄 상품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했다. 또한, 오스카뷰잉어워즈 파티에 참석한 모든 셀럽들에게 NKCL의 마스크팩 프리미엄 라인을 증정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4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행사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한국 브랜드 NKCL에 높은 관심을 보냈다.

오스카 뷰잉 어워즈에서 연설 중인 신동화 NKCL 회장

신동화 할리우드 샤인 CEO 겸 NKCL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오스카 뷰잉 어워즈 스폰서를 함으로써 NKCL은 자사의 주 목표시장이었던 중화권을 넘어 전세계로 진출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조효정 기자

"사막되기전 '입술케어' 시작하세요"

입술 피부는 다른 부위와 달리 피지선과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잠시라도 건조하면 트고 갈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4시간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 낮에는 립케어 제품을 얇게 수시로 덧바르고, 자기 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쫀득한 제형의 립크림을 도톰히 얹어 종일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매끈하고 촉촉한 립케어로 겨울에도 생기 넘치는 인상을 가꿔보자.

아벤느 '시칼파트 S.O.S 립밤'은 수크랄파트 성분을 함유해 거칠어진 입술 및 입술 주변의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고영양 립밤이다. 겨울철 푸석해지기 쉬운 입술을 촉촉하게 보호하는 제품으로, 보습력이 최대 6시간 유지된다.

버츠비 '컨디셔닝 립 스크럽'은 연약한 입술 피부를 위해 자연에서 온 성분으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돕는다. 달콤한 허니 크리스털이 입술의 묵은 각질을 말끔히 밀어내고, 비즈왁스·피마자씨 오일 등의 수분 공급 효과로 깊은 보습 컨디셔닝 기능을 갖췄다.

네이처리퍼블릭 마린 하이드로겔 립 패치

네이처리퍼블릭 '아쿠아 콜라겐 솔루션 마린 하이드로겔 립 패치'는 입술에 볼륨감을 선사하는 고보습 하이드로겔 립패치다. 영양감 넘치는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성분이 농축되어 주름진 입술에 탱글탱글한 탄력감을 부여하며, 건조하고 굴곡진 입술에도 착 감겨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조효정 기자

JW중외제약, 코로나 살균소독제 공급 확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살균 효력을 입증 받은 '릴라이온 버콘'이 다중이용시설 방역에도 사용된다.

JW중외제약은 기존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납품하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릴라이온 버콘(50g)' 2000개를 공급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0일 전국 11개 지점 모두 임시휴업을 하고 '릴라이온 버콘'을 활용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릴라이온 버콘'으로 방역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점에 들어갔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 '릴라이온 버콘'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은행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릴라이온버콘마이크로

'릴라이온 버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인간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동물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살균 효력이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증 받은 제품은 '릴라이온 버콘'이 유일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경남제약

2200조 中 온라인 출격

온라인 해외직구 판매관련 3자계약

경남제약이 온라인 해외직구 판매 관련 3자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다.

경남제약은 약 2200조원 규모의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산균 제품 및 비타민·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해 시장에 연착륙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31일 중국 GBS, 한국 에스더블유엠 그룹과 왕홍 비즈니스를 통한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판매관련 3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GBS는 그동안 한국의 유명 건강기능식품을 왕홍 비즈니스를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알려온 전문 기업으로, 경남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 유명 왕홍들에게 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세경 기자